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njugal Pow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전혜성*, 서미아**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Hye-Seong Jeon(hsjeon0510@empal.com)*, Mia Seo(miaseo@dankook.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부의 부부권력과 성역할태도 요인에는 공통적으로 그 기저에 결혼관계에서의 파워(marital power)의 이슈가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두 요인간의 상호관계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직하는 직원과 대학원생 및 지방에 소재한 1개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중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4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하였다. 자료는 총 265부이며 기술통계, t-test 및 ANOVA 분석, Pearson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권력($p < 0.05$) 및 성역할 태도($p < 0.01$) 모두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주요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성역할태도가 상대적으로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한편, 성역할 태도와 부부권력은 상호작용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제언과 더불어 합리적인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부부관계 안정성 증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고하였다.

■ 중심어 : | 중년기부부 | 부부권력 | 성역할태도 | 결혼만족 |

Abstract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jugal pow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011 to May, 2011 and 265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mean scores of gender role attitude, conjugal power,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arital middle-aged couples were higher than averages. Second, gender role attitude and conjugal power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marital satisfaction of marital middle-aged couples.

■ keyword : | Middle-aged Couple | Gender Role Attitude | Conjugal Power | Marital Satisfaction |

I. 서론

현대의 중년기 부부는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이라는 획기적인 생활사적 변화로 인해, 부부 둘만의 장기

간의 중년기 결혼생활을 영위해야하는 현실에 당면해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중년기를 비롯한 성인기의 각 단계를 10년씩 늘리고[1], 저출산 추세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는 자녀양육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부부 둘만의

관계패턴에 주목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장기화시키는 변화를 갖게 한다[2].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30대 후반에서 60세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만족스런 중년기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중년기 자체가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갱년기로 인생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회의감을 느끼며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는 시기이다[3]. 뿐만 아니라, 중년기는 사회적으로도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을 통한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시기인 동시에 예견된 사회적 은퇴로 인해 상실의 이슈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인 것이다[4][5]. 더우기 이러한 중년기 위기 및 스트레스의 문제들은 중년기 부부 둘만의 이인적 관계(dyadic relationship)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어 다양한 부부갈등 및 불일치 이슈로 작용하여 부부 상호간의 결혼만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6].

실제로, 중년기 결혼만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7], 그 중 대표적인 변수의 경우가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이다.

부부권력은 부부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목표에 갈등이 존재할 때 서로의 행동에 누가 더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능력이다[8]. 이러한 부부권력은 부부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으로 나타난다[9]. 대다수의 연구에서 부부의 공동의 의사가 반영되는 일치형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성역할태도에 대한 개념은 변화되어 왔다.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정의에서는 성역할(Gender role)을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이분법적으로 부여하였고 이로 인한 비판을 받고 있다[10]. 즉,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적인 사회적인 역할 기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과장하여 성차별을 유지시켜왔다는 지적이다[11]. 그러나 최근에는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논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가정내에서 사회적 역할수행을 기대하는 “양성적” 개념을 강조

한다[12][13]. 특히 중년기의 발달주기적 특성을 고려하면, 상호 양성성을 지닌 남편과 아내가 공존할 때 더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실제로, 중년기는 남성에게서는 여성성이, 여성에게는 남성성이 개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의 양성성이란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모든 특성과 잠재력을 살피며 통합한다는 개념으로 가정 내에서 성 역할에 보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여러 영역 내에서 보다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14].

이와 같은 부부 간의 균형적인 권력형성 및 양성적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부분 인식되어 왔다. 특히,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온 건강가족 기본법 안에서 이미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실천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할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역할과 남녀간의 불평등, 부부갈등에 따른 변화하는 역할 기대와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15]. 이에 기존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현저하게 여권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의 중년기 부부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남녀 불평등에 의한 부정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고정적인 관점을 넘어서, 더 나아가 평등적인 부부권력 및 성역할이 부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요구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중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 부부간 권력, 결혼만족 정도를 확인하고, 결혼만족에 영향력을 갖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간의 성역할태도와 부부권력의 상호영향력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부부의 전반적인 성역할태도, 부부권력, 결혼만족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과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만족

결혼만족은 부부관계 또는 결혼생활 전반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즐거움이나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의 평가나 태도를 의미한다[16]. 이러한 결혼만족은 정제된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추이에 따라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점에서 얼마나 자신의 생활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선호의 태도이다[17]. 한편, 결혼만족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부부가 위치한 부부의 발달 주기 및 부부관계 양상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2. 결혼만족의 영향요인

2.1 부부권력과 결혼만족

부부권력은 부부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목표에 갈등이 존재할 때 서로의 행동에 누가 더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능력이다[18]. 이러한 부부권력의 개념은 부부관계 연구의 초기 시점부터 관심을 받아온 개념으로 매우 오래되고 전통적인 개념이다. 부부권력에 대한 관점으로는 크게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자원이론(resource theory)으로 제시된다. 교환이론은 부부 양자간의 교환과 호혜성의 사회적 관계에서 둘 중 더 유용한 자원을 가진 개인이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권력과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자원이론에서는 자원의 많고 적음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명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러한 부부권력(marital powering)은 부부간의 불일치 및 갈등상황에서 누가 더 의사결정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로 나타난다. 부부의사결정 영향력은 부부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의미한다[19]. 부부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원이론(Resource theory)에 의하면 부부의 부부권력은 상대 배우자가 필요로 하거나 의미있게 인식

하는 자원을 많이 소유할수록 부부권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높은 교육수준, 직업, 수입 등의 자원은 부부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연령 및 결혼기간에 있어서는 연령 및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부인의 부부권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20]. 부부권력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양자간의 부부권력의 형태를 일치형(공동형), 자율형, 남편우세형, 부인우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부부의 공동의 의사가 반영되는 일치형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21].

2.2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

성역할태도에 대한 개념은 변화되어 왔다.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정의에서는 성역할(Gender role)을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이분법적으로 부여하였다[22]. 즉,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적인 사회적인 역할 기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과장하여 성차별을 유지시켜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논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성별에 따른 역할을 분리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가정내에서 사회적 역할수행을 기대하는 “양성적”개념을 강조한다[23].

중년기 부부관계는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개발하여 양성성을 지닌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형성할 때 더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양성성은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모든 특성과 잠재력을 살피서 통합한다는 개념으로 가정내에서 성 역할에 보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여러 영역 내에서 보다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24].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주로 가사노동 분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5].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부부성역할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와 그에 따른 만족도의 수준을 밝히는 내용이 주내용이다.

2.3 성역할태도와 부부권력

국내외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은 개인이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부부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원이론을 지지하고 있다[26]. 그런 가운데 Rodman(1972)과 Safilios-Rothschild(1982)는 부부 권력, 즉 부부권력을 보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자원보다 성역할 태도가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유인 즉, 이들은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권력의 결정요인으로 규범적 자원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규범을 개인에게 내재화된 태도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성역할태도라고 하였다[27].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편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인을 배제시킬 것이고, 보다 근대적이고 융통성있는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편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평등하게,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직하는 직원과 대학원생 및 지방에 소재한 1개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중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편의 추출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한 후 해당 대학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그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전에 대상자가 자의로 참여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적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참여자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지킨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한 설문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대상자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4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부를 제외하고 총 26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부부권력

대상자의 부부간의 권력 구조를 측정하기 위하여 Szinovacz(1981)의 의사결정 영향력 척도를 이혜경(1986)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8]. 본 도구는 가정 생활 영역으로 의, 식, 주, 경제, 자녀교육, 여가생활, 기타의 7개 영역에 대하여 부부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 구입 시 주거 형태를 결정할 때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큼니까?’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결정할 때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큼니까?’ 등의 문항에 대해 ‘남편’ ‘부인’ ‘공동’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남편, 부인, 공동의 각 영역에서 0점에서 28점까지이다. 부부공동의 평등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상호간의 평등적 권력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7로 나왔다.

2.2 성역할 태도

대상자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smond와 Martin(1975)의 Sex-role Orientation Scale과 Mason과 Bumpass(1980)의 Sex-role Ideology Scale을 토대로 정종희(1983)가 제작한 GRAS(Gender Role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29]. 본 도구는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한 고정 관념의 세 영역에 대하여 성역할 태도의 전통과 진보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성은 바깥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문항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의 1점에서 ‘매우 반대한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4로 나왔다.

2.3 결혼만족도

대상자의 부부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1976)가 개발한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도현심과 김수진(200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0].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부 만족도는 ‘부부간에 이혼이나 별거를 입에 올리거나 생각해 보았다’ ‘자주 부부 싸움을 한다’ 등의 문항을 ‘늘 그렇다’의 1점에서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79로 나왔다.

3. 조사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7.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만족에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은 t-test 및 ANOVA 분석을 하였다. 부부 부부권력 및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고, 결혼만족에 대한 주요 독립변인들의 영향 분석을 위해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48.3%, 여성이 51.7%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은 중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분포는 30대 후반(35세 이후)에서 50대까지이다. 40대가 53.6%로 주류를 이루었고 30대와 50대가 각각 18.1%, 28.3% 였다. 그 중 최저 연령은 36세 이었고 최고 연령은 59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전체의 52.8%로 고학력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온라인 대학 교육이 기존의 대졸 학력자들에게 재교육 또는 제2의 전공교육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는 기독교가 전체의 46.8%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천주교가 15.8%, 불교가 각각 12.8%, 이었다. 부부권력에 있어서 가족 소득원이 맞벌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살펴본 본 결과, 맞벌이가 49.4%, 맞벌이가 아닌 경우가 49.8%로 양쪽 모두가 반수를 차지하

고 있었다. 월수입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 200만원 이하가 7.8%이고 200만원-300만원 미만 8.0%, 300만원-400만은 27.2%, 400만원-500만이 38.5%, 500만원 이상이 14%를 보였다. 이러한 내용은 [표 1]에서 제시되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명(빈도%)	변인	구분	명(빈도%)
성별	남	128(48.3)	연령	30대	48(18.1)
	여	137(51.7)		40대	142(53.6)
학력	고졸	96(36.2)		종교	개신교
	대졸	140(52.8)	천주교		42(15.8)
	대학원졸	27(10.2)	불교		34(12.8)
	무응답	2(0.8)	기타		6(2.3)
소득원	맞벌이	131(49.4)	현재가계수입	200만원 미만	24(7.8)
	맞벌이 아님	132(49.8)		200만원~500만원 미만	183(73.7)
	무응답	2(0.8)		500만원 이상	37(14.0)
			무응답	12(4.5)	

2. 중년기부부의 부부권력, 성역할태도, 결혼만족 수준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서 3.2점으로 ‘약간 만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부부의 위기 유무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선행연구 중에서[31] 중년기 부부의 위기보다는 부부적응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권력 점수는 대략 평균 0.5점으로 부부가 의사결정을 통해 부부권력을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50% 가까이는 부부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나머지 50% 수준에서는 둘 중의 하나가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성역할태도는 5점 만점 중에 3.5점으로 보통수준 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부부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김태현(2005)의 연구결과와는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32]. 이와 같은 주요 변수들의 점수가 시사하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회전반에 여권

이 신장되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부 권력에서도 평등지향성이 높아지고 성역할태도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년기 부부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결혼만족도	265	1.90	4.00	3.26	0.74
부부권력	265	0.11	0.93	0.50	0.27
성역할태도	265	1.93	4.90	3.51	0.6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

일반적 특성의 변인으로 성별, 연령, 종교, 맞벌이 여부, 월수입에 따른 결혼만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중 응답자의 성별(p<0.05) 만이 결혼만족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배우자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결혼만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중년기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들 중 기혼 남녀의 결혼만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설명력이 뛰어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r값이 .6이상이 되는 변인들이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권력(p<0.05), 및 성역할태도(p<0.01). 모두 결혼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성역할태도가 부부권력 보다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이동원(1998)의 연구에서도 부부평등과 결혼만족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데, 즉, 부부가 부부권력 유형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느낄수록 결혼만족 정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33].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도 김태현(2005)의 연구에서 부부 모두가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34]. 한편,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더 낮은 수준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와 같이 부부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들이 결혼만족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 주요 독립변인에 따른 결혼만족

변인	B	SE	β	t
(상수)	2.407	.265		9.098***
부부권력	.298	.146	.120	2.050*
성역할태도	.167	.057	.170	2.912**
R	.229			
R ²	.053			
Adjusted R ²	.046			
F	8.092			

*p<.05, **p<.01, ***p<.001

VI. 결론 및 제언

중년기부부는 장기간의 중년기 결혼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중년기 부부의 이인적 관계(dyadic relationship)에는 결혼만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부부갈등 및 불일치 이슈가 존재한다. 그러나 평등적 부부권력 공유 및 양성적 성역할태도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은 부부관계의 힘의 균형과 역할의 융통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결혼만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근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결혼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로서 부부간 권력 및 성역할태도 등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권력은 평등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50%의 합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편, 양성적 성역할태도는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결혼만족은 다소 만족하는 편의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는 2005년에 수행된 김태현·박주희(2005)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부들의 대다수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부인보다는 남편들이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로 인해 결혼만족도도 낮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최근 남녀평등에 기반한 국가차원의 인식변화와 사회적분위기 및 담론형성의 결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은 부부권력($p<.05$)와 성역할 태도($p<.01$)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평등과 결혼만족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동원(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평등적 부부권력이 양성적 성역할태도와 상호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소를 함께 강조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본 연구가 2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한 것으로 인해서 갖는 대표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에 따른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을 위한 평등적 부부권력 및 양성적 성역할 태도 강화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근 5, 6년간 기혼부부의 평등한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김태현·박주희(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부들의 대다수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따르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당부분 진보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부간의 평등성이 보장될 때 결혼만족이 증진됨을 감안하면 결국 남성 자신을 위해서도 남성들이 평등성을 지향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사실상 부인의 결혼만족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남편이 부인과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러한 견지에서,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담론에서 건강하고 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평등적 의사결정을 통한 부부권력의 균형은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상호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등적인 의사결정을 할수록 양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향하고, 양성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일수록 평등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부부 상호간에 평등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강화하고 양성적인 성역할태도가 내재되어야 궁극적으로 결혼만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중년기 부부를 위한 균형적인 부부권력 유지와 양성적 성역할 태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사회문화적 담론과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년기는 남녀 모두에게 생리적 및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역할정체감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중년기에는 남편과 아내가 심리적으로 서로 대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즉, 중년기 남성들은 내재해 있던 여성성이 출현되면서 좀더 관계중심적이고 가족 내적인 방향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반면, 부인들은 오히려 내재해 있던 남성성이 발현되어 관심사가 가정 밖으로 확대되며 더욱 독립심이 강화되며 적극적인 성향으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별개의 독립된 차원이며 이 두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거나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35]. 또한 이와 같은 성정체감 고정관념은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취하는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부부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부관계의 안정성 및 적응력 증진을 위해서 이에 관한 부부교육 및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36].

참 고 문 헌

- [1] G. Sheehy, "Revolutionary shifts in aging norms", World View, pp.25-36, 1995(8).

- [2] 송정아,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13-130, 1996.
- [3] 박명희, “중년기 여성의 실존적 영적 안녕과 희망, 자아힘 돋우기(self-empowerment)”,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9권, 제2호, pp.222-233, 2003.
- [4]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5] 전혜성, “진로개발형 중년기여성의 주관적행복의 영향요인 연구; 삶의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11권, 제7호, pp.275-285, 2010.
- [6] M. Acrus, *Introduction to family life education, Minneapolis*, MN: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 1990.
- [7] 임효영, 김경신,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pp.189-203, 2001.
- [8] 김홍은,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제4호, pp.179-188, 1996.
- [9] M. E. Szinovacz, “An other look at normative resource theory contributions from Ausstrian data research not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0, pp.412-426, 1981.
- [10] 김태현,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79-106, 2005.
- [11] D. West and H. Zimmerman,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Vol.1, No.2, pp125-151, 1987.
- [12] M. W. Osmond and P. Y. Martin, “Sex and sexism: A composition of male and femamale sex-role attutid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pp.744-758, 1975.
- [13] 황은,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3권, 제6호, pp.99-113, 2004.
- [14] 송정아, “중년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13-130, 1996.
- [15] 김태현,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79-106, 2005.
- [16] 홍성례, 유영주,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12호, pp.261-272, 2000.
- [17] 이해경, *부부 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18] 김홍은,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제4호, pp.179-188, 1996.
- [19] M. E. Szinovacz, “An other look at normative resource theory contributions from Ausstrian data research not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0, pp.412-426, 1981.
- [20] R. D. Blood and D. M. Wolfe, *Husbands and wives*, New York : Free Press, 1960.
- [21] 신화용, 조병은, “자원 및 부부역할 갈등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과 결혼의 질: 재미교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3호, pp.269-295, 2009.
- [22] D. West and H. Zimmerman,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Vol.1, No.2, pp125-151, 1987.
- [23] 황은,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3권, 제6호, pp.99-113, 2004.
- [24] 송정아,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13-130, 1996.
- [25] 이동원, “부부평등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집, pp.86-112, 1998.
- [26] 신화용, 조병은, “자원 및 부부역할 갈등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과 결혼의 질: 재미교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3호, pp.269-295, 2009.
- [27] G. Kaufman, “Do gender role attitudes matter? Gender roles, marriage and residential independence,” Sociological Forum, Vol.7,

pp.679-696, 2000.

- [28] 이해경, *부부 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29] 정종희,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30] 김수진, 도현심, “부-모간 양육행동(Coparenting)의 관련 변인 :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학술지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5호, pp.101-114, 2001.
- [31] 송정아,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13-130, 1996.
- [32] 김태현,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79-106, 2005.
- [33] 이동원, “부부평등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집*, pp.86-112, 1998.
- [34] 김태현,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79-106, 2005.
- [35] 송정아,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13-130, 1996.
- [36] 이희연, 전혜성, “중년기여서의 삶의 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275-284,

서미아(Mia Seo)

정회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관심분야> : 부부 및 가족치료, 청소년 게임중독과 가족

저자 소개

전혜성(Hye-Seong Jeon)

정회원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1년 7월 ~ 현재 :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부부 및 가족상담, 이주가족적응, 정신건강, 원격 교육